

# 정황이해를 통한 성경해석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사사기 11장 입다의 인신제사)

김남일

(백석대학교, 구약신학)

## [초록]

사사 입다의 인신제사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구약성경에서는 아하스 왕 이전까지는 인신제사를 드린 기록이 없는데 사사시대의 기록은 입다가 과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렸을까? 이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글은 사사 입다가 자신의 딸을 인신제사로 드렸다는 통상적인 해석과는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 성경의 정황을 이해하고 분석함으로써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표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했다. 이러한 접근은 일반적으로 설교자들이 텍스트에만 충실한 설교로 성경의 본의를 전달하지 못하는 오류를 줄이고 성경의 전반적인 정황이해를 통한 올바른 균형 잡힌 설교를 하게 하려는데 있다. 그러므로 본문을 이해하는 방법론에 대한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사기 11장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인신제사에 대하여 반대하는 구약성경 예언자들의 일관성 있는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성경을 해석할 때 맹목적 신앙이 우선되어서는

안 되며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황을 통한 객관적인 해석이 있어야 바르고 합당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사사기 11장 입다의 이야기를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주장과는 다른 입장에서 이 글을 서술하고자 한다.<sup>1</sup>

**키워드:** 인신제사, 입다, 처녀성, 몰렉, 그모스, 길르앗, 돕

## 1. 들어가는 글

일반적으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본문(text)과 상황(context) 이 두 가지에 대한 연구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 아전인수(我田引水) 격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될 위험성이 크다. 특히 구약성경은 기록 배경이나 문화적 배경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한 균형 잡힌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본문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성경 내용이 기록된 목적과 이유(context)를 놓칠 위험이 크고, 상황에만 집중하게 되면 본문이 가진 핵심적인 메시지(text)를 놓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본문은 성경의 난해구절 가운데 하나인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와 딸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본문의 핵심적인 논쟁거리는 “과연 입다가 그의 딸을 직접 죽여서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전통적인 해석이

1 마르쿠스(Marcus)는 “*the text as it stands now, admits the possibility of either conclusion*”(지금 그대로의 본문은 또 다른 결론에 대한 가능성을 허락한다)라고 하면서 이 해석의 목적 역시 궁극적인 해석이 아니라 다른 하나의 해석학적 가능성임을 언급하고 있다(David Marcus, *Jephthah and His Vow* (Lubbock, Texas: Texas Tech Press, 1986), 52.)

바른 것인가” 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신제사는 이방신인 몰렉에게 드리는 것으로서 성경의 저자들이 신랄하게 비판을 했던 제도이다(레 18:21; 20:2-4; 렘 32:35). 그런데 아무리 이방인의 땅인 토포(Tob)에서 오래 살았다고는 하나 유대인 교육을 받고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으며, 나중에는 야웨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사인 입다가 이방신에게 바치는 제사법을 따랐을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그래서 다른 대안으로 입다가 딸을 죽인 것이 아니라 종신 처녀로 살면서 성전에서 수종을 들게 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sup>2</sup>

이에 반해서 많은 사람들은 입다가 자기의 딸을 인신제사로 바쳤다고 주장한다.<sup>3</sup> 그 증거로 입다는 인신제사가 드러졌던 길르앗 출신이라는 점과, 야웨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근절시키라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신제사는 쉽게 근절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나 단순하게 서원한 입다의 개인적인 실수 등을 들고 있다. 결국 입다가 인신제사를 금하는 이스라엘 전통에 대하여 비교적 느슨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결과 너무 쉽게 인신제사를 서원했으며 그 서원을 갚기 위해서 자기의 무남독녀를 인신제사로 바쳤다는 주장이다.

만일 실제로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주장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서약이라도 했다면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가르친다면 오늘날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같은 많은 오류들로 인해서 맹목적이고 극단적인 일이 신앙이라는 명분하에 계속 일어날 것이다. 예를 들면 죽은 사람의 시신을 11개월 동안 집에 두고 기도하면 나를 것이라고 주장했던 부친

2 P. Cassel, “사사기 룿기,” 『랑계주석』, 배영철 역 (서울: 로고스, 1999), 362-64; 박윤선, “사사기,” 『성경주석』 (서울: 연음사 1976), 272-73; G. C. Archer, *Encyclopedia of Bible Difficulties* (Zondervan, 1982), 164-65; D. Marcus, *Jephthah and his vow* (Lubbock, Tx: Texas Tech. University, 1986), 27-31.

3 메튜 헨리, “사사기 룿기,” 『메튜헨리주석』, 박근용 역 (기독교문사, 1975), 246-47; 제자원, 『그랜드주석』 4권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1), 607-08; 김경수, “약한 자와 더불어 세워 가는 교회,” 『사사기 룿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 2009), 319-20; 트렌드 버틀러, “사사기,” *World Biblical Commentary* (서울: 솔로몬, 2011), 699-704; 김의원 민영진 공저, “사사기 룿기,” 『대한기독교서회100주년기념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472-73.

모 목사의 사건이나,<sup>4</sup> 죽은 남편의 시신을 7년 동안 집에 두고서 기도하면 나올 것이라고 하면서 시신을 방치했던 방배동 약사 사건<sup>5</sup> 등 맹신적이며 광적인 기독교인들의 행동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과 같다.

이 글은 인신제사를 실제로 드렸다는 주장과는 약간 다른 입장에서 서술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사사기 11장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인신제사에 대하여 반대하는 구약성경 예언자들의 일관성 있는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성경을 해석할 때 맹목적 신앙이 우선되어서는 안 되며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황을 통한 객관적인 해석이 있어야 바르고 합당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사사기 11장 입다의 이야기를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주장과는 다른 입장에서 이 글을 서술하고자 한다.<sup>6</sup>

## II. 입다 이야기(사사기 11장)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의 인신제사 이야기는 독자들을 매우 혼란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명(命)을 받아서 혼란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외세로 부터 지켜내고 야웨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사가 한번 잘못된 서원을 갚기 위해서 자신의 무남독녀를 번제로 드렸다는 이야기는 서원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현대교회의 가르침과 맞물려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입다의 서원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세 단락으

4 2016년 2월 4일자 스포츠동아.

5 2014년 2월 12일자 중앙일보.

6 마르쿠스(Marcus)는 “*the text as it stands now, admits the possibility of either conclusion*”(지금 그대로의 본문은 또 다른 결론에 대한 가능성을 허락한다)라고 하면서 이 해석의 목적 역시 궁극적인 해석이 아니라 다른 하나의 해석학적 가능성임을 언급하고 있다(David Marcus, *Jephthah and His Vow* (Lubbock, Texas: Texas Tech Press, 1986), 52.)

로 구성되어 있다.

## 1단락, 입다의 출세(出世)와 외교 전략

입다는 길르앗의 서자 출신이다.<sup>7</sup>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었다.<sup>8</sup> 길르앗은 이미 아내가 있었지만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기생에게서 먼저 아들을 낳은 것으로 보인다.<sup>9</sup> 그리고 그의 아내 역시 뒤에 아들들을 낳았다. 어렸을 때에는 입다가 형제들과 함께 살았으나 배 다른 형제들이 장성한 후 입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줄 것을 미리 염려한 결과 입다를 쫓아냈고 입다는 돕(Tob) 땅에 거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잡류’(worthless men)들과 어울려 살면서 세월을 보내던 중<sup>10</sup>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을 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를 찾아왔다. 그리고 입다가 장관(Qachin: 명령자, 통치자)이 되어서 암몬 자손들을 물리칠 것을 요구했다(6절). 그러자 입다는 자기를 쫓아낸 사람들이 암몬 자손들이 침공했다고 이제 와서

7 길르앗(Gileadite)은 지명이기도 하면서 부족명이기도 하다(수 17:1, 3; 사 5:17). ‘입다’라는 이름의 의미는 ‘그가 열었다(he opened)’라는 의미다. 이 이름은 입다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은 후 붙인 이름으로서 이방 종교에서 주로 사용하던 자손 변명을 상징하는 이름의 한 종류다(Daniel I. Block, “Judge,” *The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 Hallman Pub., 1999), 351).

8 히브리어 조나(זונה)는 일반적으로 ‘매춘하다, 매춘부가 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아람어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던 단어다. 이 단어는 다말(창 38), 라합(수 2:1; 6:17, 22, 25)에게도 사용되었다(G. Johannes Botterweck, Helmer Ringgren, “זונה,”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0), 99-106).

9 입다의 아버지가 왜 창녀와 관계를 가졌을까? 그 창녀는 어느 민족 사람인가? 그 창녀는 혹시 가나안 신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이 그녀를 한 마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입다의 행위를 통해서 볼 때 그녀가 직업적으로 매춘을 하는 이방여인이었을 것이라고 단정한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Goodfriend, “Prostitution(OT),”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5 (New York: Doubleday, 1992), 507-10; Karel van der Toorn, “Prostitution(Cultic),” *ABD.*, 5, 510-13을 참조하라.

10 ‘아나십 레킴(잡류)에 대한 *NTV*의 해석은 *Adventurers*인데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해석이다. 동일한 표현이 9장 4절에 나오는데 이들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70명의 아들을 죽이려고 돈으로 산 악한 사람들을 지칭한다. 잡류는 ‘건달’ 혹은 ‘깡패’로 해석되어야 한다.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느냐고 말하니(7절) 이번에는 장로들이 그에게 “길르앗 주민의 머리(Rosh: 총 지휘자)가 되라”라고 하면서 사사가 되어줄 것을 요청했다(8절). 이스라엘 장로들은 암몬의 침공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입다를 찾아오기는 했으나 선뜻 사사의 자리를 내주지는 않았다. 입다가 만일 암몬을 몰아내면 이스라엘이 자기를 사사로 인정해줄 것인가를 물으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를 수용하기로 하고 입다는 장로들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야웨께 아뢰었다(10-11절).

그리고 그는 탁월한 외교 전략으로 전쟁을 하지 않고 협상으로 이 난관을 극복하려고 했다. 암몬의 왕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지날 때 차지했던 땅을 내어놓으라는 요구를 했다(13절). 그러자 입다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합법적으로 땅을 잠시 빌려달라고 요구했는지에 대하여 나열하면서 이스라엘은 그 나라들의 거절로 인해서 다른 길을 통해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을 뿐 암몬족속의 땅이 아니었다(23-2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의 왕은 이미 전쟁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이상 입다의 말을 듣지 않았다(28절).

## 2단락, 입다의 서원과 승전

그러자 입다는 암몬과 전쟁을 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그러던 중에 야웨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그가 전쟁터로 행진하던 중 야웨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그만 인신제사 서원을 하고 만다.<sup>11</sup>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11 입다의 인신제사를 실제적인 사건으로 보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주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입다가 매우 흥분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입다가 경험했던 야웨의 영으로 충만한 사건은 웃니엘(3:10), 기드온(6:34) 등도 경험했었다. 입다는 야웨의 영의 충만으로 인해서 ‘건너고, 지나고, 전진하고,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러므로 흥분한 상태에서 무책임한 서원을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은 편이다(Daniel I. Block, “Judge,” *The New American Commentary*, 365).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나라(30-31절).” 입다의 이 서원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잘못된 서약이다.<sup>1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원의 내용대로 하나님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입다와 이스라엘에게 주셨다(32-33절).

그리고 승리한 입다는 개선장군으로 미스바로 들어서는데 자기의 무남독녀가 아버지의 승전을 축하하기 위해서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아버지를 영접하러 나왔다. 이를 본 입다는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35절).” 라고 비참한 심정을 보인다.<sup>13</sup> 자기의 무남독녀를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 하는 입다의 심정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입 밖으로 내뱉은 서원은 어길 수 없으므로 그 서원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한다.<sup>14</sup>

### 3단락, 서원의 이행

아버지의 이 서원을 알게 된 딸은 먼저 아버지가 그 서원을 갚으시라고 말한다(36절). 그리고는 두 달 동안 친구들과 깊은 슬픔을 나눌 시간을

12 자신의 승리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한 ‘마음의 결심’ 정도가 그 자신에게 덮이 되어서 돌아온 것이다. 이 덮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입다 자신이 해결해야만 하는 함정이 되었다. *If you give the Ammonites into my hands, whatever comes out of the door of my house to meet me when I return in triumph from the Ammonites will be the LORD's, and I will sacrifice it as a burnt offering(30-31).*

13 라이스(Reis)는 원래 입다가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 그가 바치려고 했던 제물은 사람이 아니라 노예들 중 한 명을 속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다가 노예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은 50세겔을 제사장에게 주면 노예는 속량이 된다고 주장한다(P. Reis, “Spoiled Child: A Fresh Look at Jephthah's Daughter,”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1997). 그러나 본문과 같은 상황의 경우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 발견되지 않으므로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할 수 있다.

14 입다 시대에는 이미 서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었다. 그래서 입다가 인륜을 끊는 듯한 아픔을 참으면서까지 그 서원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레 27:8; 민 30:4; 신 23:22 등).

달라고 부탁한다.<sup>15</sup> 이에 입다가 이를 허락하자 입다의 딸은 두 달 동안 친구들과 산에 가서 ‘치녀로 죽음을 인하여’ 곡을 하고 슬퍼했다.<sup>16</sup> 두 달이 지난 후 입다는 그의 딸을 서원대로 번제로 드렸다. 길르앗 사람들은 억울하게 서원의 희생제물이 된 입다의 딸을 기리기 위해서 해마다 그녀가 죽은 시기에 나흘씩 곡을 하는 전통을 지키게 되었다(39-40절).<sup>17</sup>

그 후 5년 동안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더 활동하게 된다. 그러나 그의 남은 사역은 별로 기억될 만 한 것이 없다. 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기록도 없고, 그가 남긴 혁혁한 공에 대한 기록도 없다. 다만 그는 암몬과의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을 죽이는 비참한 일을 했다(12:1-6)는 기록만 있을 뿐이다. 이로서 사사로서의 입다에 관한 기록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 III. 인신제사에 찬성하는 근거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논쟁거리는 단연 ‘입다가 그의 딸을 실제로 죽여서 번제로 드렸느냐?’ 라는 것이다. 우리는 입다가 그의 딸을 간단하게 번제로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이방신에게 드리던 인신제사를 과연 입다가 하나님께 드렸겠느냐는 의문이 든다. 과연 입다가 인신제사를 성경이 금하고 있음을 몰랐겠는가? 무엇보다 과연 입다는 자신이 직접 딸을 번제로 드릴 만큼 돕(Tob)에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종교 행위에

15 ‘나를 두 달만 버려두소서’를 NIV는 ‘give me’로 번역하고 있으나 원어의 의미는 *refrain from me*에 가깝다(Daniel I. Block, “Judge,” *The New American Commentary*, 373).

16 그녀가 크게 슬퍼했던 이유는 정작 본인의 죽음이기보다는 아이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이다(Robert G. Boling, “Judges,” *The Anchor Bible*, 6A, 7 (New York: Doubleday, 1979), 209.)

17 딸이 얼마 남지 않은 생을 가족과 함께 보내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보낸 것은 자기를 기억하고 친구들이 자기의 운명을 슬퍼하고 치녀로 죽는 자기의 삶을 기념해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빅터 해밀턴, 『역사서개론』, 강성열 역 (서울: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05), 190.)

깊이 물들어 있었는가? 먼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인신 제사를 실제로 드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다가 길르앗에서 자랐고 이방 땅 돕에서 오랜 기간 생활했다. 둘째, 입다가 암몬과의 전투를 앞두고 대단히 흥분했었다. 셋째, 번제에 해당되는 히브리 어 올라(olla)는 ‘태워서 올려드린다’ 라는 의미로서 제사와 관련된 용어임으로 분명히 번제로 드렸다. 넷째, 입다가 자신을 영접하러 나온 딸을 보고 심하게 참담해 했었다는 점 등이 인신제사를 실제로 드렸다고 보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 1. 입다가 길르앗과 이방인의 땅 돕(Tob)에 오랫동안 살았다(1-3절).

입다가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길르앗에는 아웨를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이 살았고 그들은 그모스(Chemosh) 신을 섬겼는데(왕하 3:27) 그모스 신에게 아이를 바치는 풍습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을 것이라고 본다.<sup>18</sup> 그가 형제들로부터 쫓겨나서 살게 된 돕은 지금의 시리아(Syria)에 있는 작은 도시로서 길르앗과 가까운 곳이었다.<sup>19</sup> 이들은 주로 용병에 나가서 돈을 벌었는데(삼하 10:6, 8), 암몬의 하눈이 다윗이 보낸 사절단에게 수치스러운 일어난 후 다윗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돕 사람들을 용병으로 채용한 기록이 나온다. 외경 마카비상 5장 18절과 마카비하 12장 17절에서도 돕이라는 지명이 나오기는 하지만 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성경에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sup>20</sup>

그러나 시리아는 일반적으로 이방문화의 영향권 아래 있었다. 시리아는 다마스쿠스의 영토와 인접해 있었기에 아람(Aram)으로 많이 알려졌다. 시리아는 전통적으로 바알(Baal)을 숭배했다.<sup>21</sup> 농경의 신, 대지와 풍요의

18 윌리엄 라슬, 『구약개관』, 박철현 역 (서울: 크리스천다이제스트, 1999), 340.

19 Jaques Cauvin, "Syria," ed. Stepha Rosoff, *ABD* 6, 271-74.

20 George F. Moore, "Judge,"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Edinburgh: T. & T. Clark, 1976), 285.

21 김남일, 『아웨와 바알』 (서울: 살림출판사, 2003)을 참고하라. 그 당시 바알을 숭배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었을 정도로 바알숭배는 보편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약간씩 변형된

신인 바알을 숭배했던 시리아의 한 도시인 돕에서 입다가 사는 동안 이방종교에서 실시하던 인신제사를 직간접적으로 학습을 했을 것이고 그것이 본문에서 나왔다는 주장이다.<sup>22</sup>

그러나 이 주장은 몇 가지 의문점을 남긴다. 첫째, 입다가 돕에 살았다고 해서 과연 이방제사에 참여했었다는 증거가 있는가?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빌론에 살았지만 그 문화를 거절하고 믿음을 지킨 경우다(단 3:16-18; 6:10). 둘째, 돕 땅에 자녀를 신에게 바치는 몰렉(Molech) 종교가 광범위하게 퍼져있었는가? 성경이 돕에 대한 자료를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단지 시리아가 땅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몰렉 제사가 빈번하게 실시되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는가? 셋째, 설사 이방제사의 영향권 아래에서 자랐다고 해도 사사인 입다가 그것을 온전히 답습했을까? 그는 적어도 10년 이상은 길르앗에서 율법을 배우고 자란 사람이었다(11:1-2). 그런 그가 돕에서 살았다고 해서 과연 우상숭배에 깊이 몰이 들었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 주장의 정당성을 내세우려면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야만 한다.

## 2. 입다가 암몬과의 전투를 앞두고 대단히 흥분했었다(29-30절).

29절에서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라고 하면서 입다가 야웨의 신으로 충만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야웨의 신의 충만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나타난 현상이다(삼상 10:10-13). 그런데 인신제사를 동의하는 사람들은 입다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후 매우 흥분되어 있었다고 한다.<sup>23</sup>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으니 흥분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13절

바알숭배도 보편적이었다.

22 박은배, “사사 입다의 서원과 그의 딸의 인간제사(번제) 해석에의 소고,” 『성경대학교논문집』 제 24집 (1995): 12. 그러나 박은배는 입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돕에서 우상제사에 대한 학습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23 박은배, “사사 입다의 서원과 그의 딸의 인간제사(번제) 해석에의 소고,” 12.

이후의 내용을 보면 입다가 흥분된 상태에서 인신제사를 약속했다고 주장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그는 오히려 차분한 마음으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승리를 구하고 있다(30-31절).

구약성경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주로 예언을 하거나(삼상 10:10 사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등 부분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흥분된 상태로 부주의하여 실언을 했다는 기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입다가 흥분한 나머지 부주의하게 실언을 함으로써 그의 딸을 죽였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정확을 보더라도 설득력이 부족한 주장임을 알 수 있다. 성령의 임하심은 흥분상태라는 주장은 고전주의 구약학자인 헵스텐 베르그(E. W. Hengstenberg)의 주장인데 그에 의하면 예언자들이 하나같이 황홀경의 상태에서 계시를 받았으므로 모두들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한다.<sup>24</sup> 그 예로 사울은 옷을 벗고 바다에 누워서 예언을 했으며(삼상 19:24), 다니엘은 이상을 본 후 기력을 잃고 쓰러졌다(단 10:8-10). 선지자들은 ‘미친 놈’으로 불리기도 했다(신 28:34; 삼상 21:15-16; 왕하 9:11; 렘 29:26; 호 9:7).

그러나 이러한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재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어찌 할 수 없어서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예언이 주는 상징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려는 행위일 뿐이지 완전히 자아(自我)를 잃은 채 흥분된 상태로 자신도 모르는 예언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본문은 예언을 받는 장면도 아니고 자아를 잃을 만한 아무런 상황도 아니다. 그러므로 입다가 야웨의 영이 임해서 흥분한 자아를 가지고 선부른 서약을 했다는 것은 지나친 추론이라고 할 수 있다.<sup>25</sup>

### 3. 번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올라(olla)는 ‘상승한다’라는 의미로서 제사

<sup>24</sup> E. W. Hengstenberg, *Christology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Kregel, 1981), 101.

<sup>25</sup> 최중태는 예언자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일시적으로 자아를 잃을 수 있고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완전하게 전적으로 자아를 잃어버리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최중태, 『예언자에게 물이라』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40.)

### 와 관련된 용어임으로 분명히 번제로 드렸다(31, 39절).

사실 인신제사의 가능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번제’라는 표현이다. 번제는 모든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한 형태이다(레 4:25; 민 28:23; 15:8). 그러므로 입다가 자기의 딸을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주장은 가장 설득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만일 번제로 드리지 않았다면 굳이 번제(상승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다가 이해했던 번제가 반드시 사람을 죽여서 불에 태워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히브리어 ‘올라’(אָלַח)가 반드시 연기를 피워 하나님께 그 향기를 올려드린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sup>26</sup>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해석하면서 가장 많은 용례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절대적인 해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신제사 찬성론자들의 주장대로 입다가 길르앗과 돕에서 이방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전제하면, 그가 서약한 번제 역시 성경이 말하는 전형적인 제사가 아니라 제단에 올라가서(*to go up*) 제물을 드렸다는 말이 될 수도 있다. 이방신앙의 영향을 받은 그가 가나안의 제도에 익숙한 것이 무슨 잘못이겠는가? 그리고 설사 그가 번제(올라)를 드렸더라도 반드시 사람을 죽여서 드리는 전형적인 번제가 아닌 전승(戰勝)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감사제(*peace offering*)를 드렸을 수도 있다. 물론 번제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너무나 확고하게 구약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어서 ‘불로 태워서 드린다’라는 의미 외에 다른 의미들을 생각하기 어렵지만 단어의 보편적인 의미를 가지고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적절한

26 히브리어 ‘올라’가 우가뒤틀어로는 ‘올라간다(*to go up*)’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Richard Averbeck, “אָלַח,” *NIDOTTE* 3, 405-06). 또한 이 단어가 화목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다(같은 책, 406-07). 이렇게 본다면 입다는 딸을 제물로 불에 태워 드린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제사를 드리러 제단으로 올라갔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 승전에 대한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개연성에 대한 설명이지만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해석 방법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이 구절에 관해서는 제4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 것이다.

#### 4. 입다가 자신을 영접하려 나온 딸을 보고 심하게 참담해 했었다.

입다가 승리한 이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가장 먼저 반긴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무남독녀였다.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그녀의 모습을 본 입다는 참담한 마음으로 자신의 심경을 표현했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로다” 라는 표현은 구약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표현 중의 하나인데 참담한 심경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었다(창 34:30; 수 6:18; 7:25; 삼상 14:29; 왕상 18:17, 18).<sup>27</sup> 이런 표현은 자신의 딸을 죽여야만 하는 아버지의 심경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가 사용한 히브리어 감탄사인 ‘아하(aha)’와 ‘내 딸(bathi)’ 에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를 보여준다. 이것은 그의 딸의 죽음에 대한 탄식이기보다 자신의 어리석은 서약에 대한 탄식과 후회로 보인다.<sup>28</sup> 이런 그의 모습으로 볼 때 그의 참담함은 분명히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려야만 하는 슬픔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입다의 딸은 직접 번제로 드려졌다는 주장이다.

### IV. 인신제사에 반대하는 정황들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성경해석은 본문의 내용(text)만으로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성경의 정황(context)을 보아야 한다.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는 분명히 입다가 자신의 딸을 전형적인 번제로 드린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나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를 위해서 일단 정황을 잘 살펴봄으로써

<sup>27</sup> George F. Moor, “Judge,” ICC, 301.

<sup>28</sup> 창세기 22:7, 8에서는 아브라함이 ‘내 아들이’(בְּנִי) 라고 부르는데 뉘앙스는 매우 다르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릇된 서원으로 자신의 딸을 죽여야만 하는 입다와는 다른 경우이기 때문이다.

인신제사에 반대하는 견해를 소개하고자 한다.

### 1. 성경기자는 왜 입다의 인신제사에 대하여 비판하지 않는가?

입다가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가장 강력한 주장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의 출생지인 ‘길르앗’과 성장지인 ‘돛’이다. 길르앗에 살던 이방인들이 그모스(Chemosh)에게 바치던 인신제사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시리아 땅인 돛에서 역시 몰렉(Molech)에게 아이를 바치던 제사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길르앗은 창세기 31장 23절에 처음 등장한 이레 민수기에서 많이 언급된 지명이다(민 26:29; 32:1, 26, 29, 39; 32:40).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고 ‘증거의 무더기’(길르엣)를 쌓은 것이 지명의 유래가 되었다(창 31:7-47). 세월이 흐르면서 이곳은 ‘길르앗 산’(창 31:25), 길르앗 땅(민 32:1) 등 길르앗(창 37:25) 전체를 대표하는 지역 명칭이 되었다. 출애굽 당시 이 지역은 아모리 왕 시혼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여 길르앗 북부는 므낫세 반 지파, 남부는 갓과 르우벤 지파에게 분배되었다(민 21:24; 신 3:13; 수 13:24-31).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 몰렉제사를 처음 접하게 되었을 것이다.<sup>29</sup> 그리고 왕정시대에 몰렉제사에 대하여 강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왕하 16:3; 17:17) 이는 악한 왕인 므낫세를 비롯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의 말로를 보여줄 때 주로 언급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왕들은 인신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는 말이다. 레벤슨은 인신제사를 실제로 드렸다는 많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에서도 어린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기록(이방인을 제외하고)이 없다는 것을 가장 강력한 반대의 이유로 삼았다.<sup>30</sup> 악한 왕 아하스 이전(왕하 6:3-4)에는 어린아이를, 특히 큰아들을

<sup>29</sup> George C. Heider, "Molech,"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4 (New York: Doubleday, 1992), 895-97.

<sup>30</sup> J. D. Levenson,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the Beloved Son: The Transformation of Child Sacrifice in Judaism and Christiani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3), 14.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는 허용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입다가 반드시 인신제사를 드렸다고 보기에는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입다는 므낫세와 같은 악한 사람의 범주에 들어갈 만한 일을 하지 않았고 그의 이름이 악인의 대명사로 쓰이지 않았음을 주지해야 한다.<sup>31</sup>

또한 입다가 서자이기는 했으나 그 역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을 것으로 보인다. 창세기 2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유산을 주어서 떠나게 한 것으로 볼 때 히브리인 가정의 서자(庶子) 역시 율법에 따라서 적절한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sup>32</sup> 입다가 형제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 돕으로 도망하기까지는 입다의 가정에서 히브리인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을 것이다.<sup>33</sup> 이런 히브리인 가정에서 자란 입다가 어떻게 인신제사를 금지하는 율법의 규정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본다.<sup>34</sup>

더구나 레위기 18장 21절에서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하시면서 이미 광야에서 몰렉숭배에 대한 강한 금지를 해왔다. 레위기 20장 2, 3, 5절 등에서도 몰렉신에게 아이를 바치는 행위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런 교육에 익숙한 입다가 길르앗과 돕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인신제사를 드렸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사사는 과도기적인 제도이기는 하나 340년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

31 성경기자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왕상 15:34; 16:2, 19, 26; 22:52) 는 표현이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왕하 21:20; 23:19, 32, 37; 렘 52:2) 등의 표현을 통해서 특정한 사람의 악행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입다에 대해서는 그 어떤 수식어도 찾을 수 없다.

32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할례의 범주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팔 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라고 했는데 이는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가 언약공동체이지 혈연공동체가 아님을 보여준다.

33 2절에서는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라고 하는데 이는 입다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아버지의 집에서 살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34 본인은 오경의 주전 15세기 저작설을 신뢰할 만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본다면 입다 역시 완성된 쉘라 교본에 의한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엘을 이어주는 매개자(mediator)였다. 사사기 2장 18절은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뚜렷이 타나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어늘.” 사사는 하나님이 들어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웠다. 그런데 만일 사사가 타락을 해서 죄를 지을 경우 반드시 성경은 그 사사의 죄를 지적하고 평가를 했다(기드온과 삼손).<sup>35</sup> 그러나 입다의 경우 그와 같은 평가를 받은 일이 없다. 만일 입다가 그의 딸을 정말 번제로 드렸다면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벌을 받을 일이지만 그의 사사 기간 6년 동안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성경기사가 과연 입다의 악행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겠는가? 그러므로 입다가 드렸다는 인신제사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본문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2. 번제가 ‘사람’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포함하는가?

번제의 규정은 레위기 1장에 자세하게 나온다. 번제로 드리는 짐승은 소, 양, 염소, 새로 구분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반드시 전부를 태워서 재로 만드는 것이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7절).” 그러나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규례는 그 어디에도 없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겠다”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경우에만 해당된다.<sup>36</sup> 본문에서 ‘번제’로 드렸다고 해서 그 제물을 사람으로 드렸다고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만일 입다가 그의 딸을 번제로 드렸다면 어떤 율법의

35 “기드온이 그 금으로 예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삿 8:27).” 그리고 삼손의 악행을 낱말이 기록하고 있다(블레셋 여인과의 관계, 처가 식구들을 죽임, 들릴라와의 관계).

36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인신제사는 예외적인 경우다(창 22:2). 그리고 자기의 큰아들을 번제로 바친 모압 왕의 행위는 이방인의 풍습이다(왕하 3:27).

규례에 의해서 드렸겠는가? 구약성경에는 사람을 번제로 드릴 때의 규례가 없기 때문에 입다가 구약성경의 번제와 같은 규례에 의해서 그의 딸을 제물로 바쳤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몰렉신에게 아들을 바칠 때는 큰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거나(겔 20:26), 제물로 사용될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겔 16:21; 왕하 16:3; 21:6). 이들은 직접 사람을 희생 제물로 사용했으나 구약성경은 동물을 사용한다. 동물은 봉헌자를 대신하는 상징물이다. 봉헌자가 동물의 머리에 인수하는 순간 봉헌자의 죄가 동물에게로 전가(轉嫁)된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의 제사제도는 철저하게 인간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sup>37</sup> 입다가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서 구약성경의 번제 개념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사람을 번제로 드릴 경우의 규례를 따라야 하지만 구약성경에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규례가 없으므로 확정적으로 입다의 딸이 죽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3. 왜 입다의 딸은 두 달 동안 애곡하는 시간을 요구했나?(37-39절)

입다가 자기 또래의 여자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간 것에 대해서 블락(Block)은 “그녀는 여성적인 기쁨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 딸은 성적인 즐거움(pleasure)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모성애의 기쁨, 여성으로서의 자연적인 갈망, 그리고 고대의 문화적 상황에서의 여성의 특권 등에 대해서 모른다는 의미이다.<sup>38</sup> 즉 그녀는 앞으로 여성으로서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또래의 여자 친구들과 함께 자신이 여성으로서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같이 슬퍼하기 위해서 그녀들과 함께 산으로 갔다. 그리고 40절은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라고 함으로써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의 비참함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sup>37</sup> Gray A. Anderson, “Sacrifice(OT),”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5 (New York: Doubleday, 1992), 870-86을 참조하라.

<sup>38</sup> Block, “Judge,” 373-74.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입다의 딸이 아이를 낳지 못한 채 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번제로 드려졌다고 한다. 그래서 더 슬퍼했다고도 한다. 그러나 만일 입다의 딸이 아이를 낳지 못한 채, 즉 남자와 아무런 성적인 관계도 하지 못하고 여성으로서의 즐거움을 모른 채 그 당시에 죽었다면 이것이 모든 여인들에 의해서 매년마다 4일씩이나 슬퍼할 일이겠는가? 구약성경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많은 여자들이 나온다(창 20:18; 29:31). 그러나 그 여인들을 위해서 특별한 날을 정해놓고 4일씩이나 통곡하는 특별한 여인은 아무도 없다. 일반적으로 태(胎)의 문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라는 사상이 있었기에 가슴이 아프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편이었다. 물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이 자녀를 낳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여인들도 있다. 그럼에도 입다의 딸의 경우에는 순전히 타의(他意)에 의한 것이었다고 해도 이것이 해마다 4일씩이나 슬퍼할 정도의 일은 아니라고 본다. 이것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친구들이 입다의 딸이 살아 있는 동안 그녀를 안타까워하면서 함께 슬퍼해준 것으로 보아야 할 개연성을 주는 것이라고 본다.

#### 4. ‘처녀로 죽음’이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인가?(37-38절)

유대인 신학자이자 랍비인 김치(David Kimchi)는 입다가 그의 딸을 직접 죽여서 제물로 바쳤다는 종래의 주장에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sup>39</sup>

“입다는 그녀를 죽이지 않았다. 왜냐 하면 37절에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입다가 딸을 죽인 것이 아니라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살게 했다. 39절에서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sup>39</sup> David Marcus, *Jephthah and His Vow* (Lubbock, Texas: Texas Tech Press, 1986), 8.

김치는 실제로 입다가 딸을 죽였다는 이야기 대신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 라고만 했다.<sup>40</sup> 무어(Moor)는 “입다가 그의 딸을 죽이지 않고 집에 두고 결혼을 시키지 않은 채 살다가 죽게 했다” 라는 김치의 말을 인용해서 입다의 번제는 바로 그의 딸을 평생 독신으로 살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sup>41</sup> 이러한 주장은 유대인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어졌는데 이들은 대부분 입다의 딸이 독신으로 살면서 성전에서 수종을 드는 천한 여자로 살았다고 주장한다.<sup>42</sup>

입다의 딸에 대한 또 다른 해석 가운데 하나는 이 이야기가 아가멤논의 딸인 ‘이피게네이아 이야기’(The Story of Iphigeneia)와 유사한 전승이라는 것이다.<sup>43</sup> 헬라의 왕인 아가멤논이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금년 안으로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를 제물로 바치겠다는 서원을 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인 이피게네이아가 뽑혔다.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죽이고 싶지 않았던 아가멤논은 예언자 칼차스가 가르쳐준 대로 배를 타고 도망을 보내려고 했으나 아르테미스에게 들켜서 여사제가 되었다는 이야기다.<sup>44</sup> 내용상 입다의 이야기와 매우 비슷하지만 입다의 이야기가 이피게네이아의 이야기보다 연대기적으로 훨씬 앞선다.

그리고 우가릿 신화에 나오는 바알과 아낫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풀어 보려는 시도가 있었다. 즉 바알의 죽음을 슬퍼하는 처녀 아낫의 모티브가 들어 있다는 것이다. 바알이 여름 동안에는 죽은 상태이므로 처녀 아낫은 그를 그리워하며 온 나라의 산과 언덕을 돌아다니다가 봄이 오면 다시

<sup>40</sup> Dennis T. Olson, “Judge,”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2, ed. Leander E. Keck (Nashville: Abingdon Press, 1998), 833-34.

<sup>41</sup> George F. Moore, “Judges,” 304.

<sup>42</sup>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되었고(왕상 6:14) 그 이전에는 성막이 있었다. 그리고 성막에는 제사장들의 업무를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다(출 38:8). 입다의 딸이 이 여인들 중의 한명이라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sup>43</sup> George F. Moore, “Judges,” 305.

<sup>44</sup> A. S. Way, *Euripides*, Vol. 2 (London: William Heinemann, 1919), 287. Daniel Block, “Judge,” 375-76에서 재인용.

바알이 살아난다는 이야기의 삽입이라는 말이다.<sup>45</sup> 즉 입다의 딸은 처녀 아낀의 이미지와 동일하다고 본다. 이것은 입다의 딸이 처녀로 지냈다는 해석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입다는 자신의 서원을 무효로 할 수 있었다. 레위기 27장 1~8절에 의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1절)...다섯 살로부터 스무 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이십 세겔로 하고 여자면 열 세겔로 하며(5절)” 이라고 했다. 자신의 딸 대신 13세겔을 성전에 드리면 사람을 바치기로 한 그의 서원을 무효화할 수 있었다. 아마 딸을 직접 죽이는 번제였다면 입다는 이 방법을 택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번제는 직접적인 죽음이 아니었기에 그는 모세의 율법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랍비 김치의 해석을 지지하는 학자들의 공통점은 입다가 실제로 딸을 죽인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살아있었다는 것이다. 성막에서 수종을 들든지, 집안에 갇혀 지내면서 결혼도 못해보고, 아이도 낳아보지 못한 가장 불행한 여인이 되어서 고통 속에 살다가 죽든지 살아 있었다는 점이다. 고대사회에서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낳지 못한 여인이 얼마나 비참한 여인 인지는 입다가 잘 알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서원으로 인해서 자신의 무남독녀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가장 비참한 여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데서 오는 슬픔을 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해석은 성경의 전반적인 상황에 맞추어 볼 때 매우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다. 인신제사에 대해서 극도로 부정적인 입장인 구약성경의 사상과, 유대인으로 성장하면서 받은 신앙교육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본문의 전반적인 결론과도 상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랍비 김치의 이러한 해석은 매우 가능성이 높은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sup>46</sup>

45 J. Alberto Soggin, “Judges,” *Old Testament Library* (London: SCM Press, 1981), 218.

46 랍비 김치의 이러한 접근방법은 매우 충실하다고 본다. 오늘날 해석자들이 상황을 잘 고려하지 않고 텍스트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김치는 12세기 말에 이미 본문과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화가 된 해석을 했다는 점이다(“Kimhi David,” *Encyclopedia Judaica*, Vol.

## V. 나가는 글

이 글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사 입다의 딸이 실제로 죽지 않았다는 절대적인 명제를 제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할 때 본문(text)과 상황(context)을 균형 있게 적용해야 적절한 해석이 가능함을 강조하고자 함이다. 본문에 대한 일방적인 적용이나 해석은 더 깊은 의미를 놓치게 되고, 지나치게 상황을 강조하면 구약성경의 일관성 있는 메시지인 구속사를 놓치게 된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때 올바른 성경해석이 가능하다.

건강한 성경해석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경원어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성경 전체에 사용된 단어의 용례들을 살펴보고 분류한 후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의 단어나 표현은 어떤 용례의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동일한 표현이나 의미가 다른 책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를 알아보고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연구하는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전형적인 해석의 틀을 벗어날 수 있다.

물론 필자의 이러한 해석도 다른 해석의 여지를 용납하지 않을 만큼 절대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접근은 일부 종교개혁가들의 객관적인 해석과는 달리 현대교회들이 일반적으로 해석해 온 전통적인 방법과도 많이 다른 해석방법일 것이다. 다만 이 글의 목적은 해석의 관점을 더 넓고 깊게 봄으로써 성경의 가르침에 한발씩 다가가는 노력인 것이다.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하고 균형 있게 가르친다면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미신적이고 광신적이며 편협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Abstract]****A Research on the Possibility for Biblical Interpretation  
through the Contextual Understanding  
(Judge 11: Human Offering of the Jephthah)**

Nam Il Kim (Baekseok University)

How do you understand the story of the Human offering? In the Old Testament, there is no record of giving human sacrifices until King Ahas. In spite of this, did he(Jephthah) offer human sacrifices in the records of the age of the Judge? This article tried a different approach from the usual interpretation that he gave his daughter to a human sacrifice. By understanding and analyzing the context of the Bible, I tried to understand what the true meaning of the expression of giving a human sacrifice was. This approach is generally intended to reduce the mistake of preachers who can not convey the Bible's meaning with a sermon that is faithful to the text, and to give a correct and balanced sermon through the overall context of the Bible.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it is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text.

To do this,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story of Judge chapter 11 and introduce this story from a consistent point of view of the Old Testament prophets who oppose the human sacrifice. When interpreting the Bible, blind faith should not

be given priority, and objective interpretation through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text and context should be possible to make a proper and reasonable interpretation. I would like to describe this article in a different way from the claim that I gave a human sacrifice to the story of the chapter 11 with this viewpoint.

**Key Words:** Human Offering, Jephthah, Virginity, Molech, Chemosh, Gilead, Tob

## [참고문헌]

- 강사문 외 3인. 『구약성경 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 김경수. “약한 자와 더불어 세워가는 교회,” 『사사기 룯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 2009.
- 김남일. 『야웨와 바알』. 서울: 살림출판사, 2003.
- 김의원 민영진 공저. “사사기 룯기,” 『대한기독교서회100주년기념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김지찬. 『구약개론』. 서울: 총회출판부, 1998.
- 메튜 헨리. “사사기 룯기,” 『메튜헨리주석』. 박근용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75.
- 박윤선. “사사기.” 『성경주석』. 서울: 연음사, 1976.
- 박은배. “사사 입다의 서원과 그의 딸의 인간제사(번제) 해석에의 소고,” 『성결대 학교논문집』 24 (1995).
- 빅터 해밀턴. 『역사서개론』. 강성열 역. 서울: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05.
- 월리엄 라슬. 『구약개관』. 박철현 역. 서울: 크리스천다이제스트, 1999.
- 장일선. 『알기 쉬운 구약학』. 서울: 종로서적, 1987.
- 정규남. 『구약신학의 맥』. 서울: 두란노, 1996.
- 제자원. 『그랜드주석』 4권.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1.
- 최종태. 『예언자에게 물어라』.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 트렌드 버틀러. “사사기,” *World Biblical Commentary*. 서울: 솔로몬, 2011.
- 2016년 2월 4일자 스포츠동아.
- 2014년 2월 12일자 중앙일보
- Anderson, Gray A. “Sacrifice(OT),”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5, New York: Doubleday, 1992.
- Archer G. C. *Encyclopedia of Bible Difficulties*, Zondervan, 1982.
- Averbeck, Richard. “קָטַל,” *NIDOTTE* 3, ed. Willem A. VanGemeren,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7.
- Block, Daniel I. “Judge,” *The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 Hallman Pub., 1999.

- Boling, Robert G. "Judges," *The Anchor Bible*, 6A, 7, New York: Doubleday, 1979.
- Cassel P. "사사기 룯기," 『랑계주석』 배영철 역, 서울: 로고스, 1999.
- Cauvin, Jaques. "Syria," ed. Stephe Rosoff,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6 New York: Doubleday, 1992.
- Cecil. Roth. "Kimhi David," *Encyclopedia Judaica*, Vol. 10, Jerusalem: Encyclopedia Judaica.
- Day P. L. "From the Child is born the Woman: The Story of Jephthah's Daughter," *Gender and Difference in Ancient Israel*, Minneapolis: Fortress, 1989.
- Goodfriend. "Prostitution(OT),"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5, New York: Doubleday, 1992.
- Heider, George C. "Molech,"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4, New York: Doubleday, 1992.
- Hengstenberg, E. W. *Christology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Kregel, 1981.
- Johannes, Botterweck G. Helmer Ringgren, "זונה."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0.
- Karel van der Toorn. "Prostitution(Cultic),"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5 New York: Doubleday, 1992.
- Levenson J. D.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the Beloved Son: The Transformation of Child Sacrifice in Judaism and Christiani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3.
- Marcus, David. *Jephthah and His Vow*, Lubbock, Texas: Texas Tech Press, 1986.
- Moore, George F. "Judge,"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Edinburgh: T. & T. Clark, 1976.
- Olson, Dennis T, "Judge,"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2, edited

by Leander E. Keck, Nashville: Abingdon Press, 1998.

Reis P. "Spoiled Child: A Fresh Look at Jephthah's Daughter,"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1997.

Soggin J, Alberto. "Judges," *Old Testament Library*, London: SCM Press, 1981.